

역사서5

열왕기

열왕기

- 제목 명칭

히브리 성경	희랍어 성경(70인역)	새번역 성경
멜라킴(왕들)	왕국기 감마, 델타	열왕기

희랍어 성경

사무엘기와 연결점을 근거로 열왕기 상하권 두 권은 사무엘기에 연속되는 내용(다윗의 죽음)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제목을 함께 사용.

한국어 성경

왕들을 나열한 책이라는 의미로 열왕기라는 제목을 사용하지만, 사실 신학 분석에 있어서 열왕기는 임금의 역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과의 관계'를 성찰하고, 역사해석을 이어가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음.

열왕기

- 저자와 저작 연대

유다인 전통(Baba bathra) 예레미야로 제시

일반적 입장

M. 노트의 입장에 따라 신명기계 역사가로 제시

열왕기의 마지막 내용은 바빌론으로 유배를 간 여호야킨 임금의 석방되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음. 그것은 이 책을 최종적으로 편집하고 제작한 시기는 여호야킨의 석방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 여호야킨의 석방은 네부카드네자르의 아들 에월 므로닥이 시행 했던 것으로 기원전 561-560년 2년간 재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귀환 사건이 538년 이루어졌다면, 그 사이에 편집되고 제작 된 것으로 파악

열왕기

- 열왕기를 구성하는 전승자료

왕조실록

왕조실록을 자료로 사용

1. 1열왕 11,41 솔로몬의 실록
2. 1열왕 14,19; 2열왕 13,12 등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
3. 1열왕 14,29; 15,7 등 유다 임금들의 실록

1차 자료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

열왕기의 보도는 실록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것 ➡ 편집, 해석

왕들의 역사 기록이 편중되어 있고(분량의 차이), 가치 판단의 기준에 의해 왕들에 대한 평가가 갈리고 있기 때문 » 신명기적 사관

열왕기

연대를 추산 할 수 있도록 연대 대조방식 (synchronic scheme)을 사용하고 있지만, 몇 가지 이유에 의해 기록 연대가 정확하지 않음.

대표적 이유

사료가 정확하지 않거나 역사가가 계산을 실수한 경우,
달력과 통치 연한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을 경우, 섭정기간의 문제 등

남왕국과 북왕국의 왕들을 설명할 때 실록의 자료를 편중되게 사용

왕들을 소개함에 있어 부친의 이름을 밝히는데

(1열왕 15,25.33등 ~의 아들 ~가)

유다 임금들의 경우 모친의 이름도 함께 밝히는 모습을 볼 수 있음.

(1열왕 14,21; 15,1-2 등)

열왕기

나아가 부친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모계만 밝히는 경우도 있음
(2열왕 12,2 등)

➡ 유다의 경우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어서, 부계를 밝히는 것보다 모계를 밝히는 것이 더 필요했을 수 있음.

일반적으로 일부다처의 부계사회인 경우 친어머니의 이름을 밝혀 족보를 완성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나타남

반면, 이스라엘의 경우 반란과 암살이 잦은 이유로, 부계를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

열왕기

예언자 전승


예로보암	실로의 아히야	1열왕11,26-40;14,1-18
바아사	하나니의 아들 예후	1열왕16,1-4
아합, 아하즈야	티스베 사람 엘리야	1열왕17-19장;21장;2열왕1-2장
여호람, 아하즈야, 예후, 요아스, 여호아하즈, 여호아스	사밧의 아들 엘리사	1열왕19,16-21;2열왕2-13장
아합	이므라의 아들 미카야	1열왕22장
예로보암 2세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	2열왕14,25-27
히즈키야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2열왕19-20장
요시아	살룸 예복 담당관의 아내 홀다	2열왕22,14-20

이외 예로보암과 아합왕 시절에 활동한 익명의 예언자 전승

열왕기

왕조의 역사를 해석하는(왕조실록을 1차전승으로 하는) 단위와 문체, 어휘, 형식이 완전하게 구별

Saga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설화들이 많으며,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설화집의 분량이 방대함을 볼 수 있음.

이 설화들은 소위 예언자 집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어져 오던 전승설화라고 추정하며, 이미 구성되어 있는 이야기가 1차자료로 사용되어 신명기계 사관에 의해 편집되어 문헌이 형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벌어지던 예언 운동과 예언자 집단을 이해해야 한다.

열왕기

문학적 균형이 확인됨에도 전승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근거는?

예언전승은 아합의 죽음, 예로보암의 파멸, 예후의 임금 도유, 바빌론의 승리 등의 내용을 전달하고, 이는 역사의 흐름 안에서 실현되었음을 확인.

전승의 결합은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앙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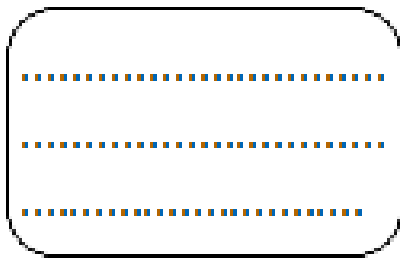
하느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계약을 파괴한 죄로 인해 유배를 떠난 백성들에게 계약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예언의 실현에 대해 예언자 전승을 통해 말하려는 의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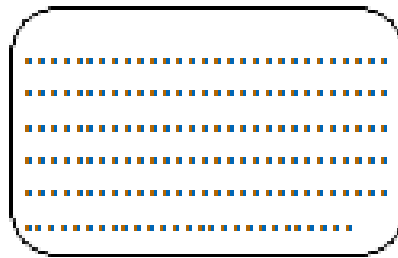
하느님의 신실성과 능력

열왕기

- 사본의 차이



MT



70인역

- MT본문과 70인역이 동일한 내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70인역은 내용이 다소 확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순서 역시 상권 20장과 21장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음.



역사 해석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는 것

열왕기

- 구조와 내용

열왕기는 전승의 규합 형태로 인해 구조를 구분하기가 까다로운 문헌이지만, 대략적으로 구분했을 때,

- ♣ 구 조

- ① 열왕기 상권 : 왕국의 분열

- i) 1장 ~ 2장 : 다윗, 솔로몬 왕위계승과 다윗의 죽음

- ii) 3장 ~ 11장 : 솔로몬의 통치(번영과 암흑기)

- iii) 12장 ~ 29장 : 왕국의 분열과 예언자

- ② 열왕기 하권 : 왕국의 멸망

- i) 1장 ~ 17장(전반부) : 이스라엘의 멸망

- ii) 18장 ~ 25장(후반부) : 유다의 멸망

열왕기

다윗(1-2장)

다윗의 말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설명하고, 다윗의 죽음을 보도

솔로몬의 통치(3-11장)

솔로몬의 지혜(3), 행정체제(4), 성전 건축과 봉헌(5-9,9), 번영과 지혜(9-10)
부인들과 적들(11)

왕국의 분열과 예언자들(12-22장)

분열의 과정(11,26-12), 예로보암, 르하브암 등 남북왕국의 통치(13-16),
예언자 전승-엘리아, 미카야 등(17-22,40), 왕들의 통치(22,41-54)

열왕기

하권

이스라엘의 멸망

1-2장에 엘리야에 대한 전승이 끝을 맺고, 엘리사 전승이 3장부터 시작
3-17장은 예언자 전승과 함께 연대 대조방식의 남북왕국의 통치가
소개되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17장에 언급

유다의 멸망

홀로 남은 유다의 상황과 왕들의 역사 기록, 멸망(18-25장)

신명기 사관의 역사해석과 평가를 유의깊게 봐야하며,
예언자 전승을 통해 민중들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

열왕기

- 신학주제

참된 임금(다윗에 대한 평가)

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은 하느님께 대한 순종 여부

사무엘기의 하느님의 통치라는 신학과 연결

참된 임금은 하느님께 대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계약의 성취여부가 중요

다윗은 후대 임금들의 본보기가 되며, 모범이 됨

“아사는 자기 선조 다윗처럼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1열왕15,11)

“요시야는 자기 선조 다윗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2열왕22,2)

“네 자손들이 제 길을 지켜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실히 걸으면, 네 자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1열왕3,4)

열왕기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 종 다윗을 생각하시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는 않으셨다. 일직이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한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2열왕8,19)



모세를 통한 계약 전승을 다윗에게 확장시키며, 다윗 왕조를 통한
구원 실현을 설명

여호야킨의 석방

순종과 불순종

멸망의 원인에 대한 규명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비롯된 것
왕들의 통치를 통해 알려주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가장 커다란 '죄'가 멸망을
초래한 근거이며, '순종'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강조

열왕기

솔로몬에 대한 평가(올곧은 신앙과 성실함)

분열의 원인을 솔로몬의 실정과 배반으로 요약

과도한 혼인정책, 과도한 건축사업을 통한 노동력 착취, 편파 정책 등

하느님의 사람일지라도 성실함을 갖추어야만 한다.

참된 역사의 주인

예언 전승에서 보여주는 이방국가들에 대한 선포 등은 하느님만이 참된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예언 전승의 실현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말씀의 실현과 신실함을 드러내고, 하느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성실함을 요구

열왕기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을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성읍으로 제시하고, 성전 제의의 중심으로 부각시킴으로 인해 제의의 정통성을 강조

➡ 올바르게 하느님을 섬기는 행위의 가치를 부각(제의)